



‘어벤져스: 엔드게임’ 티저영상 캡처.

‘어벤져스4’ 24시간 상영하나

러닝타임 3시간 초과, 하루 5~6회 상영

흥행 영향 주목...스크린 편성에도 관심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벤져스4)이 오는 24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극장가에 벌써 전원이 감돈다.

상영 시간이 세 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흥행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할리우드리포터 등 외신은 최근 ‘어벤져스4’ 상영 시간이 3시간 58초라고 보도했다.

이는 역대 마블 영화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 (2시간 29분)보다 30분 이상 길다. 이 영화를 연출한 앤서니 루소와 조 루소 감독 형제는 지난 2월부터 상영 시간이 세 시간에 달할 것이라는 힌트를 쥐었고, 얼마 전에는 3시간 2분으로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다.

월트디즈니 측은 아직 ‘어벤져스4’의 상영 시간을 공식 발표할 적이 없다. 그러나 ‘3시간 플러스알파(+α)’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스크린 편성 등에 관심이

쏟린다.

보통 극장에서는 상영 시간이 두 시간 안팎이면 오전 8시부터 밤 12시 안팎까지 하루 6~7회 정도 상영한다. 그러나 상영 시간이 세 시간이 넘어가면 물리적으

로 5~6회밖에 상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은 상영 회차를 늘리기 위해 24시간 편성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월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도 일부 극장에서 24시간 상영했다.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아직 공식 상영 시간이 나오지 않았지만, 스크린을 24시간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인터미션(중간휴식 시간) 도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영화 ‘윈스 어폰 어 타임인 아메리카’ (1984년작·251분),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 (1991년작·237분), ‘벤티’ (1962년작·222분) 같은 고전

영화를 재개봉하거나 어린이 애니메이션 ‘드래곤 스피드: 마법 꽃의 비밀’ (2017년)을 개봉할 때 극장들이 인터미션을 둔 전례가 있다.

‘어벤져스4’는 인터미션 없이 상영될 것으로 보인다. 루소 감독 형제는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편집본 시사회를 네 번 진행했지만, 세 번 상영하는 동안 화장실 가려고 자리를 뜬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만큼 스토리가 탄탄하다는 이야기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화장실 가는 사람들로 인해) 관람을 방해받지 않으려면 통로석 대신 중간 자리에 앉아야 한다’ ‘사전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은 금물’ 등의 관람 팁이 올라온다.

이달 14~15일에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아이언맨), 제러미 레너(호크아이), 브리 라슨(캡틴 마블) 등 주연 배우를 비롯해 루소 감독 형제, 마블 스튜디오 수장인 케빈 파이가 대표가 한국을 찾아 분위기를 띄운다.

극장 관계자는 “상영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어벤져스’ 시리즈 마지막 작품인 만큼, 1,000만명은 무난히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화 ‘생일’ 조용히 관객 몰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슬픔 담아

“정치적인 내용을 빼고 유가족의 삶을 다뤄서 좋았어요. 제가 희생자들과 또래라서 더 와닿았네요. 눈이 부어오를 정도로 울고 나왔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친구와 함께 영화 ‘생일’을 관람한 대학생 이 모씨(21·여)는 이 같은 감상평을 남겼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다룬 영화 ‘생일’이 조용히 관객몰이를 하고 있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 영화 누적 관객 수는 27만131명이다. 지난 3일 개봉 이후 줄곧 박스 오피스 2위 자리를 유지한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희

생된 학생들과 비슷한 또래인 20대 젊은 관객 반응이 뜨겁다.

이들은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을 가져가서 펄펄 울었다”, “생일(민남)로 가서 봐야 한다”, “대성통곡했다”, “너무 울어서 눈이 퉁팅 부었다” 등의 후기를 내놨다.

세월호 참사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룬 까닭에 개봉 전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개봉 이후에도 이 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여전하다.

‘생일’의 네이버 영화 네티즌 평점은 6.74점, 관객객 평점은 9.13점이다. 실 관객 평점과 네티즌 평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부 네티즌이 영화에 1점을 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10점을 준



네티즌이 51%로 가장 높고 1점을 준 비율이 32%로 그 뒤를 이었다.

평일 4~5만명, 주말 11만명 수준 관객을 동원한 이 영화가 앞으로 좋은 평가와 입소문에 힘입어 흥행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인피니트 장동우, 15일 입대 기초군사훈련 후 현역 복무



그들 인피니트 멤버 장동우(29)가 오는 15일 입대한다.

방송가에 따르면 MBC TV ‘호구의 연애’에 출연 중인 장동우는 15일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

한 방송 관계자는 “장동우가 입대 전까지 ‘호구의 연애’ 녹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써 장동우는 인피니트 멤버 중 지난해 입대한 성규, 지난달 입소한 성열에 이어 세 번째로 군 복무를 이행하게 됐다. 그는 앞서 의무경찰 선발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장동우는 지난달 데뷔 9년 만에 처음으로 솔로 미니앨범 ‘바이’(BYE)를 발표해 타이틀곡 ‘뉴스’(News)로 활동했다. 2010년 데뷔한 인피니트는 멤버들의 입대로 개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산지폐기 악순환’ 해법 모색

광주CBS- CMB광주방송, 내일 정책토론회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산지폐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는 정책 토론회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광주CBS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치평동 CMB 광주방송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광주CBS와 CMB광주방송 공동 주최로 열린다. 토론회는 ‘농작물 산지폐기 악순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패널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총 출동해 논의를 펼치고

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욱 연구위원, 전남겨울대파생산지협회(준) 박길성 회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는 전남대학교 주정민 교수가 맡는다.

이번 토론회는 3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펼쳐진다. ‘산지폐기의 실태, 얼마나 심각한가’, ‘산지폐기 악순환 근본적인 원인’, ‘산지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등의 소주제에 대해 각 패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보람 기자

오늘의 TV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00 한국기행(재) 20 세계테마기행(재)
7	50 인간극장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00 레이디버그 30 공룡탐험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00 딩동댕 유치원 10 두근두근 방방 45 방귀대장 뽕뽕이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아(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00 뽀로로와 노래해요 40 세상과 나쁜 개는 없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이템(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	00 다큐 공감(재) 50 한식의 마음(재)	00 국민 여러분(재)	50 기억. 특 100년을 탐험하다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20 세계테마기행(재)
12	00 KBS 뉴스12		00 12 MBC 뉴스 25 아이템(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00 EBS 정오뉴스 10 극한직업 스페셜
1	00 문화산책 50 빛과음행복아카데미	10 트레킹노트	35 짐작한 주말 X 마린벨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다큐 오늘 10 최고의 요리비결
2	50 공감다큐, 사람(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0 꼬마 히어로 슈퍼잭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도 2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00 마사와 곰 15 탐영 구조대 45 경찰소방대 파이어로보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	5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00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15 짱과 광 55 두근두근 방방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25 빠샤 메카드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10 딩동댕 유치원 15 마사와 곰 30 로보카 폴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00 특!특! 보니 하니 25 로봇 발명왕 러스티 45 우리 몸 X파일
7	00 KBS 뉴스 7 40 우리랄 겨루기	50 원소집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TV블로그 쫄지락	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 열전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백년만의 귀향 집으로	00 SBS 8 뉴스 35 KBC 8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세계테마기행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30 한국기행 50 EBS 다크프라임
10	00 가요무대	00 국민 여러분	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00 해치	45 아빠 찾아 삼만리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	10 안녕하세요	10 설탕의 제국	10 동상이몽2	55 지식의 기쁨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10 스포츠 다이어리 25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30 나이트라인	45 지식채널e 50 세계의 드라마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4월 8일 (음력 3월 4일)

子	48년생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60년생 마음을 굳게 먹고 정면 승부를 걸어라. 72년생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84년생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午	42년생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54년생 잘 난 척 하면 미움을 받는다. 66년생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78년생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丑	49년생 효자보다 약처가 낫다. 61년생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는다. 73년생 작은 오해 때문에 시비에 휘말린다. 85년생 원래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未	43년생 마지막까지 내편은 가족뿐이다. 55년생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세를 장악한다. 67년생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 79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寅	50년생 근심거리가 해결되니 편안하다. 62년생 뒷사람의 후원을 받는다. 74년생 하루가 시원하게 툰다. 86년생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쁜 소식을 듣는다.	申	44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있겠다. 56년생 갑당 못할 일은 처음부터 시작도 말라. 68년생 아픈 만큼 성숙해 질 것이다. 80년생 산 너머 산이다.
卯	51년생 행운이 따르는 좋은 날이다. 63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75년생 일단 시작하면 그럭저럭 된다. 87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酉	45년생 존경과 애정을 얻는다. 57년생 아는 것이 병이 될 때도 있다. 69년생 열심히 노력하면 정취할 수 있다. 81년생 망신살이 있으니 절대 자중하라.
辰	52년생 공돈이 생기는 운수 좋은 날이다. 64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은 있다. 76년생 행복은 만족 속에 있다. 88년생 선심 쓰고 욕을 먹는다.	戌	46년생 지나친 조급함은 후회를 낳는다. 58년생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70년생 마음 급하지 일의 진척이 없다. 82년생 명성을 떨친다.
巳	41년생 구설수가 있겠으니 조심하라. 53년생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려라. 65년생 죄가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77년생 주변 어디에도 내편은 없다.	亥	47년생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 59년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71년생 권력과 재물을 한꺼번에 얻는다. 83년생 숨겨진 일꾼이 등장만 나 무렵이다.